미래인재전형 628명 선발… 자기주도·창의·성실 인재

숭실대학교 Soongsil University

숭실대학교는 2022학년도 전체 모집인원(3078명)의 약 58%인 1786명(정원외 포함)을 수시모집을 통해 선발한다. 수시모집의 대표적인 전형인 SSU미래인재전형의 경우 2022학년도에는 628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 전형은 1단계-서류종합평가 100%(3배수)와 2단계-1단계 성적70% + 면접30%로 학생을 선발한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없으며, 지원한 모집단위 전공에 관심과 열정이 뚜렷한 '자기주도·창의·성실'형 인재를 요구한다.

고른기회전형은 169명의 모집인원이 배정돼 있다. 수도권 주요 대학들과 비교해도 적지 않은 인원이므로 해당 지원자격(국가보훈대상자,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졸업자, 서해5도학생)을 충족하는 학생이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볼 만하다.

학생부우수자전형은 기존에는 지원 시 별도의 학교장추천이 필요 없었으나 2022학년도부터 학교장추천을 받은 자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전형방법은 학생부 교과성적 100%로 전년도와 같으나 공통과목·일반선택(80%), 진로선택과목(20%)으로 세분화 됐다.

논술우수자전형 모집인원은 281명으로 전년대비 11명 줄었다. 전형방법(논술60% + 학생부교과40%)과 논술고사 유형(통합교과형)은 기존과 동일하나, 2020학년도부터 자연계열 논술고사에서 과학논술을 폐지했다.

학생부우수자전형과 논술우수자전형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상세모집요강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현진 기자 lhj@

조상훈 입학처장

약대 최대규모 선발… 학생부교과 지역균형전형 신설

중앙대학교 CHUNG-ANG UNIVERSITY

중앙대학교는 올해 총 모집인원 5074명 중 63.7%에 해당하는 3231명을 수시모집에서 선발하며, 나머지 1756명은 정시모집에서 선발한다.

주요 사항으로는 학생부교과(지역균형)전형이 신설됐으며, 학생부종합전형 중 다빈치형인재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한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교사 추천서가 폐지되고 자기소개서 공통 문항이 3개에서 2개로 줄어들어 총 3문항으로 구성된다.

특히 중앙대는 약대 학제 개편에 따라 학부신입생을 2022학년도부터 선발한다. 중앙대 약대의 정원은 120명이지만 수시와 정시에서 총 129명(정원내 120명, 정원 외 9명)을 선발하며 이는 전국 37개 약대 중 최대 규모이다. 수시에서는 총 55명을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전형 및 논술전형에서 각각 선발하며, 정시에서는 총 74명을 선발하게 된다.

올해 신설된 학생부교과(지역균형)전형은 전년도에 교과 위주 전형인 학생부교과와 학교장추천전형을 통합한 전형이다.

학생부종합전형으로는 수시에서 1620명을 선발한다. 이 중 다빈치형인재, 탐구형인재, SW인재는 각각 590명, 595명, 75명을 모집한다.

수시모집의 22%인 701명의 학생들을 선발하는 논술전형은 논술 60%, 학생부 40%로 선발한다. 논술전형에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된다.

모든 모집단위에서 한국사 4등급 이내를 공통으로 만족해야 한다. 중앙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논술과 학생부교과(지역균형전형), 실기전형 지원자 전원에게 봉사활동 점수 만점을 부여한다.

/이현진 기자

김영화 입학처장

모집인원 81% 수시모집… 학생부교과면접 폐지

Venture 1st 호서대학교

호서대학교는 2022학년도 수시전형에서 전체 모집인원의 80.7%인 2328명을 선발한다. 수시전형은 크게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실기위주전형으로 나눠진다. 모든 전형에 복수지원이 가능하다.

눈에 띄는 변화는 '학생부교과면접전형'의 폐지다. 해당 인원은 학생부전형(학생부교과)과 호서인재전형(학생부종합)으로 나눠 뽑으며 호서인재전형(학생부종합)이 기존 329명에서 676명으로 대폭 확대 선발하게 된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의 자소서가 전면 폐지돼 지원자들의 부담이 줄었다. 면접은 학생부종합전형의 면접만 남은 것인데 면접은 서류기반 심층면접으로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준비하면 된다.

학생부전형(학생부교과)은 총 1013명을 선발해 35.1% 가장 많은 인원을 모집하며, 출결을 반영하지 않고 학생부 교과성적만 100%로 반영한다. 모든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없다.

지역학생전형(학생부교과)은 학생부 성적 100%로 선발하며, 충청·세종·대전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319명을 모집하고 있다. 특히 학생부전형과 지역학생전형은 문이과 교차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부터 고교 진로교과 가산점 제도를 도입해, 진로 선택과목 중 상위 2개 과목 총점에 5%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또한, 작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학생부교과 성적반영 방식이 달라졌다. 전 학년 중 상위 3개 교과 자동계산되는 방식으로 고등학교 3학년 성적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였다.

/이현진 기자

최인호 입학처장

작년 입시 기조 유지… 중복지원 가능

인하대학교

인하대학교는 2022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전체 모집인원 3922명 중 2672명(68.1%)을 선발한다. 선발방식은 전반적으로 지난해 입시 기조를 유지하는데, 전형 일정이 중복되지 않는 한 모든 전형에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학생부종합전형 중 인하미래인재전형은 그대로 유지되고, 지난해 운영하던 학교장추천 전형이 인하참인재전형으로 변경됐다. 지난해와 달리 학교장 추천 없이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다.

미래인재는 1단계 서류 평가 70%, 2단계 면접 평가 30%로 선발하고, 참인재는 서류 평가 100%다. 미래인재는 전공 관련 활동이 우수한 학생이, 참인재는 기초 학업능력이 우수한 학생이 지원하면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지역균형 전형인 학생부교과(지역추천인재) 전형은 교과 100%로 선발하며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운영하며, 추천인원은 계열 구분 없이 고교당 7명이다.

수능최저학력기준도 완화됐다. 특히 수도권 소재 대학의 교과 전형 선발 인원이 확대 됐고, 추천인원 제한이 있어 경쟁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논술전형은 논술 70%에 교과 30%를 일괄합산하는 방식이다. 올해 485명을 선발하는데, 수도권 대학 중 논술전형 선발 비율이 높은 편이다.

자연계 수리논술 출제범위가 달라졌다. 기하 및 확률과 통계 과목을 출제범위에서 제외했다.

입학처홈페이지에서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출제범위도 분석해볼 수 있다.

/이현진 기자

김현정 입학홍보처장

기타 전형 없는 학교장추천 신설

한국외국어대학교 HUFS

한국외국어대학교는 2022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서울캠퍼스 1020명, 글로벌캠퍼스1011명 등 총 2031명을 선발한다.

올해는 학교장추천전형이 신설됐다. 이 전형은 학생부 교과 90%, 비교과(출결일수, 봉사시간) 10%로 선발하며, 자기소개서, 면접 등 기타 전형 요소가 없어 전형 준비에 대한 부담 없이 지원할 수 있다. 단, 소속(졸업)학교의 추천을 받아야 지원할 수 있으며 고교당 20명 이내로 추천 가능하다.

학생부 교과성적 산출 시 교과성적 반영지표에 원점수가 포함된 점이 올해 학교장추천전형의 특징이다. 반영지표로 등급과 함께 원점수가 적용된다. 또, 지난해 학생부교과전형에서는 선발하지 않던 LD·LT학부가 올해부터 학교장추천전형에서 선발을 실시한다.

올해부터 학생부종합전형 모든 전형에서 자기소개서가 폐지되고, 학교생활기록부(또는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활동보고서)만을 평가한다.

학생부종합전형(SW인재) 신설도 큰 변화다. 아울러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선발인원을 확대하고자 고른기회전형 I 의 선발인원도 확대했다.

한국외대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업(탐구)역량, 계열적합성, 인성, 발전가능성을 서류평가에 반영한다(면접형/SW인재: 계열적합성 40%, 학업(탐구)역량·인성·발전가능성 각 20%, 서류형/고른기회 I : 학업(탐구)역량 40%, 계열적합성·인성·발전가능성 각 20%). 학업역량이 교과성적으로 오해되는 것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학업역량으로 지칭하던 것을 학업(탐구)역량으로 변경했다.

한국외대 온라인 모의논술은 7월 14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다. PC로 입학처홈페이지에 접속해 응시할 수 있다. 개별 채점 결과는 8월 23일부터 11월 19일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양재완 입학처장